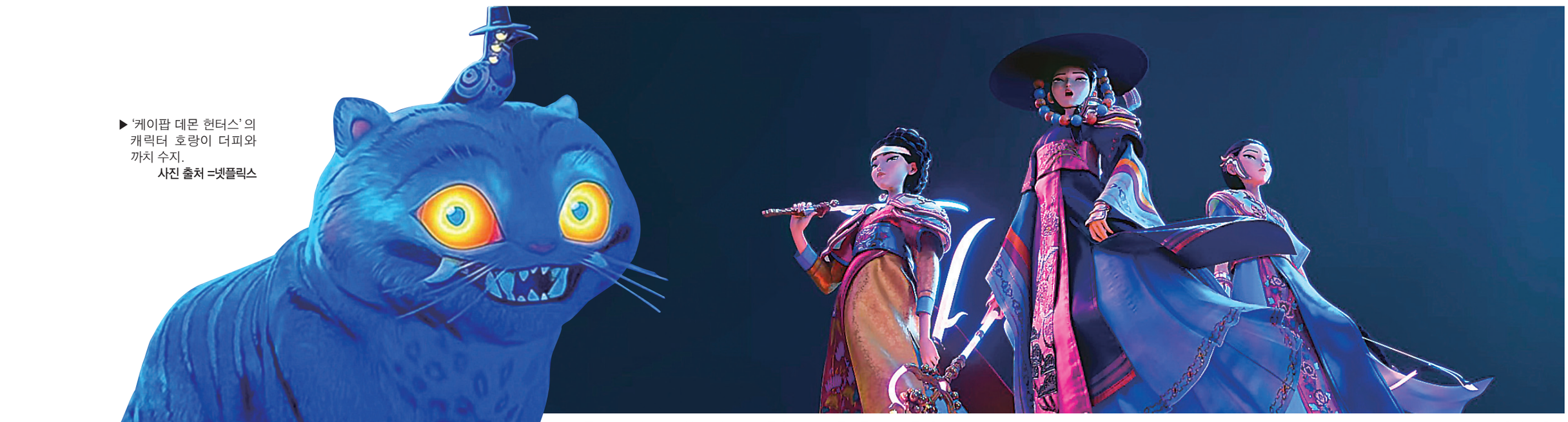
벽사·길상 의미 담긴 전통 동물 불교미술에도 영향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호랑이 더피와 까치 수지.
사진 출처 =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
사진 출처=넷플릭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① 아이돌이 된 명부사자(冥府使者)

② 성보 속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벽화, 조선 후기.
사진 제공=필자



공주 대비암 산신도, 조선 후기.
사진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전통문화 속 벽사의 아이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수많은 요소가 등장한다. 그중 가장 큰 인기를 끈 캐릭터는 바로 '더피'와 '수지'다. 앞글에서 다룬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멤버 진우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하는 더피와 수지는 국내외 언론과 SNS 등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민화(民畵) '호작도(虎鵲圖)'를 모티프로 제작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다. 이 무기 역시 호랑이나 까치처럼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더피와 수지의 원류인 호작도와 헌트릭스가 사용한 무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랑이와 까치 그린 민화 '호작도'

호작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전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을 호랑이 설화가 많은 나라라는 뜻의 '호담국(虎談國)'이라 했고, 이웃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저 멀리 유럽까지도 우리를 호랑이의 민족이라 표현했다. 이렇듯 호랑이는 명실상부한 민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호작도는 그 원류가 중국이지만 조선 스타일로 재탄생했다. 액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까치까지. 그야말로 '환상의 커플'로 이루어진 호작도는 조선 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고, 정월 초하루 액운을 막기 위해 대문 앞에 붙이는 문배도(門排圖)로 사용됐다.



사인검과 별자리 문양, 조선 후기.
사진 출처=국립고궁박물관

호작도는 불교계에도 영향을 준다. 첫 번째는 사찰 벽화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전각 곳곳에서 호작도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산 통도사, 강화 전등사처럼 대들보와 공포를 호랑이로 형상화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처럼 호작도가 사찰 벽화와 건축 장식에 사용된 예는 액운을 막는 기능, 즉 벽사의 관념이 불교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산신도(山神圖)의 호랑이다. 사찰의 산신각(山神閣) 혹은 산령각(山靈閣)이라 불리는 전각에는 산신도가 봉안되어 있는데, 대부분 산신령과 호랑이가 함께 표현된다. 호랑이가 산신령 옆에 찰싹 붙어 있거나, 산신령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습도 있다. 이는 우리 국토에 수많은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던 점과 더불어 당시 호랑이를 '산군(山君)', 즉 산의 주인으로 여긴 관념을 보여준다. 이에 산신도에 표현된 호랑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자 '화신(化身)'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다.

벽화·산신도 등에 친근하게 표현

그런데 사찰에 표현된 호랑이를 살펴보면 뻐드렁니와 사시(斜視) 등 영락없는 민화 스타일이다. 또 나한상 일부에는 호랑이를 반려묘처럼 꼭 끌어안은 모습도 확인된다. 무릇 불교미술이란 엄숙한 종교예술이라 여겨지는데, 사찰 속 호랑이는 이와 상반되게 익살스럽고 해학이 넘친다. 이는 백성들을 위한 배려다. 사찰을 편하게 여길 수 있도록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을 그려넣은 것이다. 이러한 자비심 덕분에 백성들은 사찰을 친근하게 여겼을 것이고, 이는 민화 바람이 분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시작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특이한 건 수지의 외모다. 위아래로 달린 세 개의 눈은 기존 호작도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 문화 곳곳에는 특정 부위가 세 개로 이루어진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 발 까마귀 삼족오(三足烏)부터 세 개의 머리로 삼재(三災)를 쪼는 삼두응(三頭鷹), 세 개 눈이 달린 지옥견 삼목구(三目狗)까지 그 사례가 다양하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호랑이
통도사 · 전등사 벽화서도 확인
인검 · 석장 등 무기 든 주인공
악귀 쫓는 '오컬트 관점' 해석



진주 청곡사 나한상의 호랑이, 조선 후기.
사진 제공=필자

이는 세 개의 신체 부위로 액운을 막는 의미와 함께, 3이 완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점을 알려준다. 대표적으로 〈사기(史記)〉의 "숫자의 시작은 1이고, 끝은 10이다. 이는 3에서 완성된다."라는 기록과 〈설문해자(說文解字)〉에 "3은 천지인(天地人)을 만든 법칙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에 세 개의 신체 요소를 지닌 전통문화 속 동물은 벽사와 길상(吉祥)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지가 지닌 세 개의 눈 역시 이와 같은 사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벽사와 불법의 아이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귀를 퇴치하는 '오컬트' 장르의 애니메이션 영화다. 헌트릭스 멤버는 무복(巫服) 차림에 여러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월도(偃月刀)와 각궁(角弓), 신검(神劍)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두 무기에 주목해 보자.

첫 번째는 '인검(寅劍)'이다. '사인검(四寅劍)', '사인참사검(四寅斬蛇劍)'이라고도 불리는 인검은 앞서 살펴본 호랑이와 관련이 깊다. '인(寅)'은 십이지 중 세 번째인 호랑이를 뜻하는데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액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조선 왕실의 인검은 '인'자가 들어간 해, 월, 일, 시간에 제작되었으며 칼날 양면에는 별자리와 주술적 내용의 검결(劍訣)까지 새겼다. 명칭부터 제작, 구성에 이르기까지 인검은 벽사의 성격이 매우 짙다.

두 번째는 '석장(錫杖)'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칵카라(Khakkhara)'라고 불리는 석장은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머리 부분에 고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리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듣고 짐승과 벌레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살생을 막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석장은 스님의 상징물이었다. 대표적으로 석장을 공중에 날렸다는 고승 양지(良志)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양지사석(良志使錫)' 기록이 있으며,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지물(持物)로도 표현된다. 지장보살은 석장과 보주(寶珠)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와 '귀멸의 칼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벌레와 짐승을 쫓아내는 석장의 성격을 악귀 무리를 쫓아낸다는 오컬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문화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글로벌 플랫폼과 한류열풍 덕분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의 산물로 치부됐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MZ세대들의 인식이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힙(Hip) 불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MZ세대들에게 불교가 큰 인기다. 지난해와 올해 수많은 인파로 화제가 된 불교박람회의 참가자 중 20~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편안하고 개방적인 불교에 MZ세대가 크게 호응한 것이다. 이들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연이어 등장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 또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석장 머리 부분, 고려 후기.
사진 출처=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지장보살도, 고려 후기.
사진 출처=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김용덕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사, 한국민화센터 이사

